



百濟 法華信仰과 占察懺悔

– 부여 능산리사지 ‘宿世結業’ 목간을 중심으로

Baekje's Lotus-Sutra and Jeomchal Buddhist Mass researched through Buyeo Neungsan-ri temple site's "Sook-se-gyeol-up(宿世結業)" wooden tablet

| | |
|--------------------|--|
| 저자 (Authors) | 이장웅 Lee, Jang-Woong |
| 출처 (Source) | 한국고대사연구 , (92), 2018.12, 125-164 (40 pages)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 (92), 2018.12, 125-164 (40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고대사학회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7598 |
| APA Style | 이장웅 (2018). 百濟 法華信仰과 占察懺悔. 한국고대사연구, (92), 125-164.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0:31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百濟 法華信仰과 占察懺悔

—부여 능산리사지 ‘宿世結業’ 목간을 중심으로—

이장웅*

- I. 머리말
- II. 백제 法華信仰과 八關懺悔
- III. 부여 능산리사지 목간과 백제의 占察懺悔
- IV. 백제 불교의례가 후대 法相宗·天台宗에 끼친 영향
- V. 맺음말

국문 초록

백제 불교는 발정, 현광, 혜현으로 이어진 法華信仰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융화를 꾀했다. 그리고 토착신앙과 연결되는 불교적 天神인 帝釋天에 대한 불교의례인 八關會 역시 그동안 신라와 고려에서만 행해진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백제에서도 행했을 가능성을 살폈다.

본고에서는 특히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발굴된 “宿世結業” 목간에 주목하였다. 그리

*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대표 논저 : 2016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新羅史學報』 38 ;
2017 「신화 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 2017 「백제 웅진기 ‘建邦之神’ 제사와 聖王代 유교식 天 관념」 『韓國古代史探究』 26.

고 이를 宿世 善惡의 業을 관찰하여 懺悔한 후 三世 果報의 差別相을 점쳐보는 의식인 占察法會를 백제에서도 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신라 승려 圓光의 점찰법회만이 아니라 백제에서도 승려 현광을 통한 법화신앙과 점찰법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백제에서 法華信仰을 바탕으로 한 占察懺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백제의 불교사상과 후대의 영향에 대하여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玄光, 圓光, 法華信仰, 占察法會, 陵山里寺址, 宿世結業 木簡, 百濟

I. 머리말

백제의 불교신앙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괄적인 연구와¹⁾ 함께 미륵신앙과²⁾ 법화신앙에³⁾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법화신앙과 관련해서는 최고 권력자인 왕실과 관련하여 聖王(轉輪聖王)-威德王(大通佛, 威德世尊)-法王(釋迦牟尼)으로 이어지는 백제 사비기 왕호가 『法華經』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거나,⁴⁾ 성왕대 大通寺 창건 및 사비 천도의 사상적 배경까지 『法華經』과 관련시켜 이해한 연구가 제기되었다.⁵⁾ 이후 법화 승려들에게 관심이 확대되

1) 金煥泰, 1985 『百濟佛教思想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 김두진, 2006 『백제의 정신세계』, 주류성.

2) 金三龍, 1983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 최연식, 2011 『백제 후기 미륵사상의 전개과정과 특성』 『韓國思想史學』 37.

3) 길기태, 2006 『백제 사비시대의 불교신앙 연구』, 서경문화사 ; 조경철, 2015 『백제불교사 연구』, 지식산업사.

4) 趙景徹, 1999 『백제의 支配勢力과 法華思想』 『韓國思想史學』 12, pp.34~37.

5) 趙景徹, 2007 『儒·佛 統治理念의 具現』 『사비도읍기의 백제(백제문화사대계 5)』, 충청

어 發正, 玄光, 慧顯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發正은 지배층과 가까웠던 승려로, 玄光과 慧顯은 지배층과 거리를 둔 채 활동했던 승려로 규정한 연구도 제시되었다.⁶⁾ 최근에는 백제 오악 제사와 법화 승려 및 그들이 주석했던 불교사원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나왔다.⁷⁾

한편, 백제에서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신라는 法興王의 불교 수용 이후 眞興王과 眞智王을 거쳐 眞平王과 善德女王, 眞德女王에 이르는 中古期 불교식 왕명 시대로, 眞興王 12년(551)에는 고구려에서 온 惠亮法師을 僧統으로 삼아 百座講會와 八關之法이 실시되었다.⁸⁾ 이후 진평왕 시기에는 원광의 占察法會,⁹⁾ 황룡사에서 열린 팔관회와 백고좌회¹⁰⁾ 등 많은 구체적인 불교의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¹⁾ 그동안 신라의 불교사상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영향을 위주로 본 데에서 벗어나 남조 불교의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¹²⁾ 현재는 여러 정황상 백제를 통해 남조 불교를 받아들였음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¹³⁾ 그런데 이처럼 신라 중고기의 활발한 불교의례 연구에 비해 백

남도역사문화연구원, pp.90~91 ; 2015, 「法華·涅槃과 律」 『百濟佛教史研究』, 지식산업사, pp.131~132.

- 6) 김기태, 2010 「백제의 법화사상과 惠現求靜」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1, pp.131~167.
- 7) 이장웅, 2016 「百濟 東岳 鷄藍山과 玄光의 翁山 梵刹」 『韓國古代史探究』 23.
이장웅, 2016 「百濟 西岳 旦那山과 慧顯의 修德寺·達拏山寺」 『韓國古代史研究』 84.
- 8)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 9) 신종원, 1991 「圓光과 眞平王代의 占察法會」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12.
박광연, 2002 「圓光의 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박미선, 2005 「圓光의 점찰법회와 三階教」 『韓國思想史學』 24.
- 10) 김복순,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新羅文化』 36.
- 11) 이만, 2010 「新羅의 佛教儀禮와 發達」 『佛教學報』 55.
- 12) 辛鍾遠, 1992 「6세기 新羅佛教의 南朝的 性格」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 13) 정병삼, 2016 「고구려·백제와의 교류」 『신라의 불교계의 새로운 동향과 선종(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1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제의 불교의례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여 陵山里寺址에서 출토된 목간들 중에 불교의례와 관련된 것이 있다는 점은 자료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¹⁴⁾ 그중에서도 능산리사지 초기 배수로에서 출토된 “宿世結業” 목간은 백제의 이두와 시가 자료로 중시되었는데,¹⁵⁾ 필자는 이러한 점과 함께 불교의례 본연의 목적에 좀 더 충실하게 다가가 해석하여 백제의 불교의례를 복원하기 위한 자료로 주목해 보고자 한다. 백제 당대의 목간 자료와 함께, 상대적인 자료의 풍부함으로 인해 이미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신라 중고기 불교의례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면 백제의 불교의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宿世業을 통해 善惡을 점치고 이를 懺悔한다는 占察法會가 그동안에는 신라의 圓光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본고에서는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宿世結業” 목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백제에서도 이러한 불교의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밝히고, 점찰법회 시행의 근원이 되면서 백제에서 크게 유행했던 법화신앙과 미륵신앙이 신라·고려 등 후대에 끼친 영향이 컸음을 조명하고자 한다.



능산리사지 宿世結業 목간

- 14) 朴仲煥, 2002 「扶餘 陵山里 發掘 木簡 豫報」 『한국고대사연구』 28.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 39.
 15) 金永旭, 2003 「百濟 吏讀에 對하여」 『口訣研究』 11.
 조해숙, 2006 「백제 목간기록 “宿世結業…”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31.
 홍승우, 2013 「扶餘 지역 출토 백제 목간의 연구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II. 백제 法華信仰과 八關懺悔

법화신앙은 사바세계 靈鷲山에 상주하면서 설법하는 현세불인 석가모니 불의 자애를 기원하는 현세 긍정적인 대승불교의 근본 교학이다.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聲聞乘·獨覺乘의 소승과 함께, 중생 제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菩薩乘을 중시하여 함께 3승으로 삼고, 이들 3승을 하나로 모아 佛이라는 1승의 세계로 승화시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법화신앙은 성문·독각·보살의 셋을 모아 佛이라는 하나의 세계로 나가는 會三歸一의 사회통합 사상이며, 이를 통해 사회의 여러 갈등 요소를 타협과 조화 속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있기도 하지만,¹⁶⁾ 대체로 국가 사이의 통일이나 국가내부 제 계층 사이의 통합을 이루는 구실이 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¹⁷⁾

중국에서는 西晉(265~316) 武帝(司馬炎) 太康 7년(286)에 竺法護(239~316)에 의해 10卷으로 구성된 『正法華經』이 처음 漢譯되면서 『法華經』을 위주로 불교를 이해하는 法華信仰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後秦(姚秦, 384~417) 文桓帝(姚興) 弘始 8년(406)에 鳩摩羅什에 의해 7卷 혹은 8卷으로 구성된 『妙法蓮華經』으로 번역되면서 남북조시대에 『법화경』은 출가 승려가 가장 먼저 독송하고 애호하는 경전이 되었다.

법화신앙은 『妙法蓮華經(法華經)』 卷7 第25 觀世音菩薩普門品에 나타난 觀音菩薩의 영험신앙을 중요시하는 觀音信仰, 第28 普賢菩薩勸發品에 나타난 普賢菩薩의 수행을 중요시하는 普賢信仰을 필두로 하여 釋迦信仰, 文殊信仰, 淨土信仰 등도 두루 포함하고 있다.¹⁸⁾

16) 박광연, 2013 『新羅 法華思想史 研究』, 혜안, pp.241~248에서는 會三歸一의 의미에 대하여 사회 통합 사상이라는 점에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해석들을 검토하였다.

17) 조경철, 2015 「법화·열반과 율」 『백제불교사 연구』, 지식산업사, pp.131~132.

觀世音菩薩普門品을 위주로 한 관세음신앙은 危難 구제, 소원 성취 등 현실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었기에 재가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求福的 성격을 지니면서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 끌 수 있었으며, 불교 수용 이전의 天神, 山神, 水神 등 자연신을 숭배하며 소원을 빌던 토착신앙의 전통이 그 대상을 관세음보살로 바꾸어 불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법화경』 독송으로 보현보살의 감응(수행 증험)을 기대하는 보현신앙은 재가자보다는 출가자의 신앙이며, 『법화경』 第28 普賢菩薩勸發品과 『보현관경』은 세트로 보현행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백제에서는 6세기 초·중반의 梁에서 활동하다가 성왕 때 귀국한 發正, 6세기 중·후반 천태종 제2조인 南岳 慧思(514~577)의 문하에서 法華三昧를 증득하고 위덕왕 때 귀국하여 지방 五岳 중 東岳 鷄藍山에서 활약한 玄光, 7세기 혜왕·법왕·무왕 초기까지 西岳 旦那山에서 활동한 惠現(慧顯) 등 이름이 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승려들이 법화신앙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백제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법화신앙도 지배층은 물론 지방 민중들까지 폭넓게 수용하면서 백제 불교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玄光은 중국 天台宗을 개창한 智顓와 함께 南岳 慧思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하며 법화신앙을 이어받은 대표적 門徒이다. 중국에서 懷讓의 影堂 안에 봉안된 28인 중에 현광이 모셔졌고, 天台山 國淸寺 祖堂에도 현광이 봉안되었다는 점¹⁹⁾ 크게 주목된다.

백제에서는 법화신앙이 특히 유행하면서 지방에까지 널리 퍼졌으며, 이러한 모습은 지방에서 발견되는 석조 불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禮山 四面石佛은²⁰⁾ 신라의 사방불보다 앞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

18) 김두진, 2006 『백제의 정신세계』, 주류성, p.155.

19) 南嶽祖構影堂 內圖二十八人 光居一焉 天台國淸寺祖堂亦然 <『宋高僧傳』 卷18 感通6 陳新羅國玄光>

20) 예산 사면석불의 조성시기는 주로 미술사적 분석에 따라 6세기 전·중반으로 보거나

기의 사방불로, 북조와 남조의 양식이 모두 보이면서 백제적인 특징도 보이고 있는 성왕대의 작품이며, 佛力으로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고자 한 호국불교적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²¹⁾ 구체적으로 성왕 3년(525)에 신라와 交聘하면서²²⁾ 적극적인 북진정책을 추진한 시기로부터,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기는 553년 이전까지의 시기에 자신을 전륜성왕으로 신격화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의하면 성왕대에는 계율을 통해 正法을 구현하고자 하는 계율종이 유행했는데, 이러한 正法은 四洲를 正法으로 통치하는 전륜성왕 사상과 통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四洲를 다스리는 사방 관념에서 사면석불이 조성된 것이라 한다.²³⁾

이러한 사면석불 조성의 경전적 근거에 대해서는 신라 진평왕 9년(587)에 四佛山에서 발견된 四面佛을 『法華經』을 독송하던 비구승에게 일임한 기록이 있어,²⁴⁾ 기존에 연구된 『金剛明經』 외에 『法華經』과의 연관성도 짐작할 수 있다. 백제에서는 이보다 앞선 6세기 중반경에 예산 사면석불이 조성되었으므

(朴永福, 1984 「禮山 百濟四面石佛의 고찰」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 文明大, 2003 「백제 사방불의 기원과 예산 석주사방불상」 『관불과 고졸미』, 예경 pp.259~288 ; 정재운, 2007 「예산 사면석불의 조성시기와 그 배경」 『백제연구』 45, p.47), 6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金春實, 1998 「百濟 彫刻의 對中交涉」 『百濟 美術의 對外交渉』, 藝耕 ; 金理那, 2003 「韓國古代佛教彫刻比較研究」, 문예출판사, pp.11~59)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두 편년 모두 6세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백제의 법화 승려 玄光이 활동하고 慧顯이 출가하던 시기 예산 일대의 불교문화를 알려주는 데 무리가 없다.

- 21) 문명대, 2003 「백제 사방불의 기원과 예산 석주사방불상」 『관불과 고졸미』, 예경.
정은우, 2005 「禮山 四面石佛의 미술사적 검토」 『百濟文化』 34.
- 22) 春二月 與新羅交聘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3年>
- 23) 鄭載潤, 2007 「禮山 四面石佛의 조성 시기와 배경」 『百濟研究』 45, pp.47~50.
- 24) 竹嶺東百許里有山屹然高峙 眞平王九年甲申 忽有一大石四面方丈彫四方如來 皆以紅紗護之 自天墜其山頂 王聞之命駕瞻敬 遂創寺嵩側 額曰大乘寺 請比丘亡名誦蓮經者 主寺 洒掃供石香火不廢 號曰亦德山 或曰四佛山 比丘卒既葬 塚上生蓮 <『三國遺事』 卷3 塔像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로 역시 『법화경』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²⁵⁾ 이로 보면, 백제의 사면석불은 불교의 법화신앙과 진륜성왕 사상으로 지방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예산에서 멀지 않은 서산과 태안에 조성된 백제 마애삼존불은 당시 이 일대가 대외교역이 활발했던 거점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외교역에 종사하던 해양세력이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려는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⁶⁾ 특히 태안마애삼존불은 좌우로 여래를 배치하고 중앙에 해상 안전을 도와준다는 관음보살을 안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도상으로 지적된다.²⁷⁾ 당시 해양세력이 불교 도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중요시되었던 『法華經』의 관음신앙만을 취신한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⁸⁾ 세부적인 견해에서 차이는 있지만, 서산과 태안의 백제 마애삼존불 조성과 관련된 사상적 배경을 대부분 『법화경』 및 이와 관련된 관음신앙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²⁹⁾ 주목된다.

관음보살은 『華嚴經』 등에도 등장하지만, 해상 수호 보살의 성격은 『法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에 강조되어 있다. 백제에 법화신앙과 연결되는 관음신앙이 존재했음은 『海東高僧傳』 卷1 流通1 釋摩羅難陀의 기록으로도³⁰⁾ 알 수 있다. 여기에는 “三韓 중에 성인이 머무는 산(聖住山)이 있는데 이름은 室梨

25) 趙景徹, 1999 「百濟의 支配勢力과 法華思想」 『韓國思想史學』 12, p.34.

26) 金周成, 2003 「죽목동유적의 쇠퇴와 태안마애삼존불」 『韓國上古史學報』 40, p.71.

27) 姜友邦, 2000 「삼국시대 불상의 원형이해-도상과 존명을 통해 본 신앙형태-」 『法空과 莊嚴』, 열화당, pp.84~85.

28) 노중국, 2006 「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특성」 『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재조명』,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p.15.

29) 김리나, 1985 「삼국시대의 봉지보주형 보살입상 연구 -백제와 일본의 像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37; 문명대, 1995 「泰安 百濟磨崖三尊佛像의 新研究」 『佛教美術研究』 2, pp.14~16; 최연식, 2007 「月出山の 觀音信仰에 대한 고찰」 『천태학연구』 10, pp.220~221.

30) 中有聖住山名室梨母怱梨[唐言三印山] 峻峯高聳 觀世音菩薩宮殿在彼山頂 卽月岳也 此處聖住未易殫書 然百濟乃馬韓之謂矣 《海東高僧傳》 卷1 流通1 釋摩羅難陀

母怛梨이며, 험준한 봉우리가 높이 솟았는데 觀世音菩薩의 宮殿이 이 산 정상에 있으니, 곧 月岳³¹⁾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백제에 관음보살 상주 신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³¹⁾ 月岳은 현재 전남 영암 월출산인 達拏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항상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이곳 達拏山寺로 옮겨왔던 혜현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백제와 활발히 교류했던 중국 隋의 자료를 통해 백제의 八關懺悔에 대해 살펴보겠다.

A-①. 廣州에 한 僧이 있어 塔懺法을 행했다. 가죽으로 2장의 帖子를 만들어 하나는 善字를 쓰고 하나는 惡字를 썼다. 사람들에게 던지게 하여 善者를 얻으면 좋고 惡者를 얻으면 좋지 않다고 하였다. 또 自撲法을 행하여 罪를 멸하게 하였는데, 男女가 뒤섞여 있었다. 靑州에도 한 居士가 있어 이 法을 똑같이 행했다. 開皇 13년(593)에 어떤 사람이 廣州 官司에 이것이 요망하다고 고했다.³²⁾ 《歷代三寶紀》卷12》

A-②. 開皇 元年(581) … 閏三月에 詔를 내렸다. … 그 五嶽의 아래에 마땅히 각각 僧寺 하나씩을 창건하라. 7월에 또 詔를 내렸다. … 매년 國忌日에 업무를 쉬고 齋를 설하여 불상을 조성하고 道를 행하며, 八關懺悔하여 神靈을 받들어 모시라.³³⁾ 《歷代三寶紀》卷12》

31) 김두진, 2016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 일조각, p.224.

32) 而廣州有一僧行塔懺法 以皮作二枚帖子 一書善字一書惡字 令人擲之 得善者好 得惡者不好 又行自撲法以爲滅罪 而男女合雜 靑州亦有一居士 同行此法 開皇十三年 有人告廣州官司云 其是妖 《歷代三寶紀》卷12(『大正新脩大藏經』第49))

33) 開皇元年 … 至閏三月 詔曰 … 其五嶽之下 宜各置僧寺一所 至七月 又詔曰 … 所以每年至國忌日 廢務設齋造像行道 八關懺悔奉資神靈 《歷代三寶紀》卷12(『大正新脩大藏經』第49))

- B. 聖住禪院은 본래 隋 煬帝 大業 12년(616) 乙亥(615)에 百濟國 28世 惠王의 아들 法王이 건립한 烏舍寺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冤魂이 佛界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願刹이다.³⁴⁾ <『崇巖山聖住寺事蹟』>

A자료는 隋 費長芳이 開皇 17년(597)에 저술한 불교 역사서인 『歷代三寶紀』로, A-①에는 廣州와 靑州 등지에 점찰법회가 널리 행해졌는데, 593년에 어떤 사람이 廣州 官司에 이를 요망하다고 고한 내용이 있다. 중국에서는 580년경 『점찰경』이 등장한 직후 남부에서부터 점찰법회가 행해졌고, 곧이어 陳의 수도인 金陵 지방에서도 일반 남녀들이 점찰법회를 행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되어 593년경에는 산둥성까지 전해진 것이다.³⁵⁾

A-②에 의하면, 隋 文帝는 開皇 원년(581)에 五嶽의 아래에 각각 僧寺를 하나씩 창건하라는 조칙과 함께, 매년 國忌日에 업무를 쉬고 齋를 설하여 불상을 조성하고 道를 행하며, 八關懺悔하여 神靈을 받들어 모시라는 조칙을 내렸다. 당시 隋와의 관계에 큰 힘을 기울이던 백제 法王은 이러한 수 문제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아 오악 지역에 불교사원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므로,³⁶⁾ 수 문제 때 행해진 불교의례인 점찰법회와 함께 八關會와 懺悔 등도 백제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B에서 戰勝한 冤魂이 佛界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願刹로 창건된 백제의 烏舍寺(烏舍寺, 烏舍寺)는 신라의 호국사원인 皇龍寺와 비슷하게 전쟁의 승리와 국가의 평안을 비는 호국의식의 執典處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⁷⁾ 하지만 오합사의 위치가 지방 거점 중 하나인 北岳 지역이라는 점에서,

34) 聖住禪院者 本隋煬帝大業十二年乙亥 百濟國二十八世 惠王子法王所建烏舍寺 戰勝爲 冤魂願昇佛界之願刹也 <『崇巖山聖住寺事蹟』>

35) 박광연, 2002 『圓光의 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pp.116~117.

36) 이장웅, 2017 『백제 五岳 제사와 佛敎寺院』 『百濟研究』 66.

37) 이도학, 1989 『泗泚時代 百濟의 四方界山과 護國寺刹의 成立』 『百濟研究』 20.

중양의 황룡사보다는 진흥왕 33년(572) 10월에 戰死士卒을 위해 八關會를 열었다는 外寺와 비교될 가능성이 크다.

신라에서는 진흥왕 12년(551)에 고구려 망명승 惠亮法師를 僧統으로 삼고 百座講會와 八關之法을 처음 두었다.³⁸⁾ 그리고 진흥왕 33년(572) 겨울 10월 20일에는 戰死士卒을 위해 外寺에서 八關會를 設하여 7일만에 訖했다.³⁹⁾ 이후 선덕여왕 14년(643)에 皇龍寺 9층탑이 완성된 뒤에도⁴⁰⁾ 팔관회를 열어 罪人을 赦하여 外賊이 나라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⁴¹⁾ 진흥왕 33년의 八關會는 10월에 개최되었지만, 태봉의 궁예와⁴²⁾ 고려의 태조 왕건은⁴³⁾ 신라의 풍습을 따라 팔관회를 개최하면서도 그 시기는 一陽이 시작되는 冬至가 있는 仲冬인 11월에 행한 것으로 보아, 이후에는 11월로 정착된 듯하다.⁴⁴⁾

38) 十二年辛未 … 至是惠亮法師 領其徒出路上 居柒夫下馬 以軍禮揖拜進曰 昔遊學之日 蒙法師之恩 得保性命 今邂逅相遇 不知何以爲報 對曰 今我國政亂 滅亡無日 願致之貴域 於是 居柒夫同載 以歸見之於王 王以爲僧統 始置百座講會及八關之法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39) 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 七日罷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33年)

40) 三月 創造皇龍寺塔 從慈藏之請也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14年)

41) 建塔之後 設八關會 赦罪人 則外賊不能爲害 《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九層塔)

42) 광화 원년(898) 戊午 … 겨울 11월 처음으로 八關會를 거행했다. 《삼국사기》 권50 列傳10 궁예)

43) 太祖 원년(918) 11월 有司에서 말하기를, “前主는 매년 仲冬(11월)에 크게 八關會를 열어 복을 기원하였는데, 바라건대 그 제도를 따르시옵소서”라고 하자, 왕이 이를 따랐다. 마침내 毬庭에 輪燈 1座를 설치하고 香燈을 사방에 진열하였으며, 또한 2개의 彩棚을 설치하였는데 각기 높이가 5丈 남짓 되었다. 앞에서는 百戲歌舞를 공연하였는데, 四仙樂部和 용·봉·코끼리·말·수레·배는 모두 新羅의 故事였으며, 백관은 도포(袍)와 笏을 갖춰 의례를 행하니 관람하는 자가 都城에 넘쳐났다. 국왕은 威鳳樓에서 이것을 보았고, 해마다 常例로 삼았다. 《高麗史》 卷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44) 김복순·김영미·조범환·이만·주경미, 2010 「고대 불교의례 연구」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p.129.

원래 불교 경전에서는 四天王이 사람들의 孝善과 持戒 여부를 관찰하여 帝釋天에게 보고하는 매월 6재일(8·14·15·23·29·30일) 만이라도 8戒를 지키는 것을 권하는 의례를 八關齋라고 하며, 이를 지키면 三惡趣에 不落하고 佛法을 善學하며 彌勒會上에서 만난다는 공덕이 설해지고 있다.⁴⁵⁾ 이러한 인도의 불교의식이었던 八關齋가 중국 南朝에서는 주로 吳·晉 때에 번역된 『佛說齋經』, 『奉法要』에 근거를 두고 변화·발전하여 행해졌다. 『佛說齋經』에서는 사후 열반을 얻기 위해, 『奉法要』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齋의 중요한 동기로 꼽았다고 한다.⁴⁶⁾ 팔관재를 受持하면 죄장이 소멸되어 八難에 떨어지지 않고 육계 6천인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경전적 교리에 근거하여 죽은 이의 죄업을 소멸하고 천상으로 천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⁴⁷⁾

祭天儀禮의 天神을 불교화한 것이 帝釋天이므로, 제석천을 기쁘게 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의례인 八關齋는 제천의례 및 토착신앙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⁴⁸⁾ 그러므로 기존 토착신앙이 강고했을 지방에서도 이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의 팔관회도 의례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지방사회의 참여가 포함된 의례였다.⁴⁹⁾

고려시대의 八關會는 天神과 山川神을 종합 제사하였다. 고려 太祖 王建의 훈요 제6조에는 “朕이 지극히 원하는 바는 燃燈과 八關에 있다. 燃燈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八關은 天靈 및 五嶽 名山 大川 龍神을 섬기는 것이니,

45) 『增壹阿含經』 卷38 第2經 八關齋經(『大正新脩大藏經』 第2冊)

46) 신종원, 2016 『신라불교의 개척자들』, 글마당, p.66.

47) 안지원, 2005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출판부, p.132.

48) 高翊晉, 1989 「三國의 佛敎傳來와 定着」 『韓國古代佛敎思想史』, 東國大出版部, pp.68~70.

49) 강호선, 2015 「고려시대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 59, p.55.

후세에 奸臣들이 가감을 建白함을 일절 금지하라”고 하여,⁵⁰⁾ 팔관회가 토착 신앙의 天과 名山 大川 및 龍神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백제에도 사비도성에 사천왕을 모신 天王寺가 건립되어 있었고⁵¹⁾ 뒤에서 살필 E-②의 『觀世音應驗記』에 의하면 익산 도성인 枳慕蜜地에 帝釋精舍가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사천왕과 제석천에 대한 신앙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백제의 國家祭祀는 도성 중앙의 天 제사, 도성 외곽의 五帝 제사와 함께 지방통치의 의미를 지닌 五岳 제사도 四仲月에 함께 이루어지면서 중앙과 지방의 제사가 서로 밀접하게 통합된 의례의 공간을 구현하고 있었으며, 이후 중앙의 天과 五帝 및 지방 五岳의 山神에 대한 제사가 불교사원 안에 융화되어 거행되었다.⁵²⁾

신라에서 팔관회가 전사자들의 넋을 천도하기 위한 의례로 거행된 후, 고려 태조 때의 팔관회는 태조를 대신해 목숨을 잃은 신승겸의 偶人을 만들어 공연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전몰자를 위한 위령제의 기능이 중요시되었다. 이로 보면,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는 불교 八關齋의 공덕설 대신 전사자의 冥福(生天)을 비는 위령제로 나타나며, 행한 날짜도 불교 八關齋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劉宋 孝武帝가 孝建 원년(454) 文帝의 기일에 행한 八關齋나⁵³⁾ 齊 武帝가 永明 원년(483)에 행한 八關齋戒로 보아 남조에서 齋의 목적은 亡子 追善이 첫 번째라 하겠는데, 진흥왕의 八關齋도 남조의 예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⁴⁾ 그리고 신라에서 중앙의 皇龍寺와 지방의 外寺에서 모두 팔

50)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減者 切宜禁止 《高麗史》卷2 世家2 太祖 26年 4월)

51) 五月 風雨暴至 震天王道讓二寺塔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20年 5月)

52) 이장웅, 2017 「백제 五岳 제사와 佛教寺院」 『百濟研究』 66, pp.70~71.

53) 孝建元年 世祖率群臣 並於中興寺八關齋 《宋書》卷89 列傳49 袁粲)

孝建元年 文帝諱日 群臣並於中興寺八關齋 《南史》卷26 列傳16 袁粲 附 袁粲)

54)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p.197.

관회가 거행된 것처럼 백제에서도 그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懺悔와 관련해서는 백제 승려 玄光의 법화수행법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玄光에게 法華安樂行門과 法華三昧를 증득하게 한 중국 스승 慧思의 法華安樂行門은 『法華經』 第14品 安樂行品에 기초한 법화수행법으로, 『法華經』을 讀誦하거나 一心으로 외우며, 六根으로 지은 죄업을 하루에 6회 참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⁵⁵⁾ 慧思는 본래 北齊 출신으로 大乘과 小乘의 여러 禪法을 수행한 후 觀法을 통해 『법화경』의 진리를 체득하는 法華三昧行法을 창안하였다. 그는 처음에 북조 禪 수행자들의 주된 수행지였던 嵩山에서 수행하다가, 남쪽의 大蘇山으로 옮겼고, 567년에는 다시 陳의 南嶽 衡山으로 옮겨 교회를 펼쳤다. 그러므로 현광이 백제에서 펼친 慧思의 법화삼매행법도 본래 교리 연구를 위주로 하던 기존의 남조 불교와는 달리 觀法 실천을 중시하는 북조 불교 수행법의 일종이었을 것이다.⁵⁶⁾

그리고 慧思의 중국 제자로 천태종을 개창한 天台 智顚(538~597)는 중국에서 『점찰경』이 찬술되는 陳末 隋初(550~590년대)에 유행하던 懺悔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法華三昧懺儀』를 저술하였다.⁵⁷⁾ 이러한 점에서 지의와 동문수학한 현광을 통해서도 법화신앙과 관련된 懺悔法 역시 백제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에서 善惡業과 果報의 관찰 후 懺悔를 통해 善業의 바탕을 마련하는 占察法會가 오랫동안 실시된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신라 圓光의 점찰법회는 巫覡信仰과의 관련 속에서 占卜이 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면서 業說과 輪廻說 등 불교적 세계관이 인식되었고,⁵⁸⁾ 특히 죽은 자의 追善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 것으로 보고 있다.⁵⁹⁾ 점찰법회의 소의

55) 이기운, 1996 「玄光의 法華三昧 연구」 『韓國佛敎學』 21, p.34.

56) 최연식, 2011 「백제 후기의 불교학의 전개과정」 『불교학연구』 28, pp.205~206.

57) 박미선, 2013 「신라 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윤회 인식」, 혜안, p.23.

58) 金相鉉, 1991 「新羅 中古期 業說의 受容과 意義」 『韓國古代史研究』 4.

경전인 『점찰경』과 三階敎가 모두 如來藏思想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사상으로, 일반민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널리 수용하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⁶⁰⁾

특히 신라 圓光과 백제 玄光은 중국 남조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활동하면서 서로 행적이 겹치는 부분도 있다. 곧, 『續高僧傳』卷22 明律下 唐蘇州通玄寺 釋慧旻傳에 기록된 “十五聽法 迴向寺 新羅 光法師 成論”이라는 기록에 대한 해석 문제로, ‘新羅 光法師’를 백제 현광으로 보아 그가 중국 제자인 慧旻이 15세가 되던 587년(위덕왕 34)까지 『成實論』을 가르치면서 중국에 머물며 수행하다가 귀국하였다는 설이 있고,⁶¹⁾ 현광이 아닌 신라 圓光을 가리킨다고 보면서 이 기록을 통해 원광이 隋가 아닌 陳에 먼저 유학한 증거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⁶²⁾ 이는 백제 승려인 玄光에 관한 기록이 『宋高僧傳』에 ‘陳 新羅國 玄光’이라는 표제 하에 실려 있는 점에서 발생된 문제이다. 필자는 『宋高僧傳』의 현광 기록에서 그가 法華三昧를 證得하자 스승 慧思(514~577)가 이를 印可하고는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이를 베풀라고 하였고, 이에 스승과의 이별에 눈물을 흘리며 귀국했다는 점에서, 현광이 스승 慧사가 입적한 577년 이전에는 귀국했을 것으로 보아 후자 설을 따르고 있다.⁶³⁾ 이처럼 두 승려의 중국 유학 행적이 겹치고 있다는 점도 백제와 신라의 비슷한 불교신앙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수 있다. 곧, 신라 원광의 점찰법과 함께 백제 현광의 법화신앙에서도 점찰법과 참회를 찾아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59) 박광연, 2002 「圓光의 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60) 朴美先, 2005 「圓光의 占察法會와 三階敎」 『韓國思想史學』 24.

61) 李起雲, 2000 「백제 玄光의 교화행에 대한 연구-玄光의 제자와 그들이 얻은 三昧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27, pp.224~225.

62) 辛鍾遠, 1992 「圓光과 眞平王代の 占察法會」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p.214.

최연식, 1995 「圓光의 생애와 사상」 『태동고전연구』 12, p.7.

63) 이장웅, 2016 「百濟 東岳 鷄藍山과 玄光의 翁山 梵刹」 『韓國古代史探究』 23, p.57.

이렇게 보면, 현광은 577년경 백제로 귀국했고, 원광은 이후 隋의 수도 長安에 들어갔다가 600년에 신라로 귀국했다는 점에서, 원광이 陳에 있을 때부터 塔讖法을 알았을 것이지만 A-① 사건이 벌어진 593년경 隋에서 『점찰경』의 진위 논쟁이 발생하면서 점찰법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인지했으며, 현광은 이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백제는 현광만이 아니라 수의 건국과 천하통일을 이룬 시기에 지속적으로 수와 교류하면서 최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곧, 백제는 581년에 隋가 건국되자마자 사신을 보내 교섭을 청했고,⁶⁴⁾ 이어 582년에도 수와 교섭을 가졌으며,⁶⁵⁾ 589년에 隋가 陳을 멸망시키자 축하하는 사절까지 보냈다.⁶⁶⁾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陳末 隋初에 매우 유행했던 점찰법회를 백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일반 민중들은 종교적 사유보다 종교적 儀禮를 통해서 신앙체제를 형성해 간다. 천재지변, 질병, 죽음 등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토착신앙에서는 신령의 힘을 빌어 祭祀, 占卜, 呪術을 행하는데, 불교에서는 재난도 중생들이 지은 業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악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행하려는 懺悔, 持戒, 施與, 修行을 행한다. 『周書』에 백제가 醫藥·卜筮와 함께 占相의 術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된 점에서도,⁶⁷⁾ 백제에서 민중들의 토착신앙에 근거한 점찰법회가 자리잡을 바탕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본다.

『점찰경』에서 業은 마음을 따라 相을 나타내고 果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므로, 드러난 상을 잘 관찰하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상에 나타난 번뇌를 제

64) 冬十月 乙酉 百濟王扶餘昌遣使來賀 授昌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 《隋書》卷1 帝紀1 開皇 元年 冬10月)

65) 春正月 辛未 高麗·百濟並遣使貢方物 《隋書》卷1 帝紀1 開皇 2年 春正月)

66) 平陳之歲 有一戰船漂至海東牟羅國 其船得還 經于百濟 昌資送之甚厚 并遣使奉表賀平陳 《隋書》卷81 列傳46 東夷 百濟)

67) 亦解醫藥卜筮 占相之術 《周書》卷49 列傳41 異域上 百濟)

거하면 청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점찰법은 바로 善惡業의 관찰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이 곧 宿世에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한 業報輪廻임을 자각하고, 이후 懺悔라는 자기반성을 통해 이전의 惡業을 제거하고 善業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III. 부여 능산리사지 목간과 백제의 占察懺悔

II 장에서는 백제의 법화신앙과 함께 팔관회, 참회, 점찰법회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중국, 신라, 고려의 자료를 비교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宿世結業” 목간과 『觀世音應驗記』에 나타난 당대 자료를 통해 백제의 占察懺悔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C-①. 〈1면〉 宿世結業同生一處是

非相間上拜白來

〈2면〉 慧暉師前 〈扶餘 陵山里寺址 305호 목간〉

C-②. 宿世(前生)에서 業을 맺어 同生(現世)에 함께 태어났으니, 是非(善惡)

의 相을 물어 우러러 예배하며 來世를 사릅니다.

慧暉 스님 앞. 〈扶餘 陵山里寺址 305호 목간〉 해석)

D. 이와 같이 일체의 法이 실로 生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일체의 境界에 差別의 相이 없으며 寂靜한 一味이므로 이름을 真如·第一義諦·自性清淨心이라고 한다. 저 自性清淨心은 湛然하고 圓만하여 分別相이 없기 때문이다. 分別相이 없다는 것은 일체의 處소에 있지 아니한 바가 없다는 것이며, 있지 아니한 바가 없다는 것은 일체의 法을 의지하고 지니며 세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다음으로 彼心을 如來藏이라 이름하니, 이른바 無量無邊하고 不可思議하며 새지 않고 청정한 功德의 業을 두루 갖춘 것이다.⁶⁸⁾ 《『占察善惡業報經』卷下》

백제에서 행해진 불교의례의 모습은 C-①의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305호 “宿世結業” 목간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이 목간은 뒷면의 “慧暉師前”으로 보아 누군가가 능산리사원의 승려로 보이는 慧暉에게 보내는 詩歌體의 書簡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목간은 폐기 연대가 6세기 중엽부터 567년 전후로 추정되는 중문지 남서쪽 초기 자연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므로, 능산리사지가 불교사원의 역할을 하기 이전의 초기 시설 및 불교사원과의 관련성을 모두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목간을 불교적 내용으로 보아 능산리 초기 시설에서부터 승려가 상주하고 있었던 증거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⁶⁹⁾ 이곳은 배수로이므로 불교사원이 존재했을 시기에도 목간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

이 목간에 대해서는 국어학의 입장에서 “前生の 因緣으로/ 現世에 함께 하니/ 是非를 서로 물어/ 上拜하고 사뢰져”라고 해석하면서, 4언 4구라는 일정한 운문 형식을 갖추고 있고, 한국어 어순과 한문이 혼재한 백제 고유의 문체가 확인되며, 정서적 표현과 불교적 내세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백제 최초의 詩歌가 기록된 書簡 목간으로 알려졌다.⁷⁰⁾ 이외에도 불교 경전의 일부분 또는 그와 관련된 어구를 기재한 습서 목간 혹은 교본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⁷¹⁾ 이를 백제어로 부른 노래를 漢譯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죽음을 당

68) 如是一切法實不生滅者 則無一切境界差別之相 寂靜一味名爲真如第一義諦自性清淨心 彼自性清淨心湛然圓滿 以無分別相故 無分別相者 於一切處無所不在 無所不在者 以能依持建立一切法故 復次彼心名如來藏 所謂具足無量無邊不可思議無漏清淨功德之業 《『占察善惡業報經』卷下》

69) 尹善泰, 2004 『扶餘陵山里 出土 百濟木簡의 再檢討』 『東國史學』 40.

70) 金永旭, 2003 『百濟 吏讀에 對하여』 『口訣研究』 11.

해 장례의 절차를 감당하면서 자신의 소회를 풀어낸 애도가로 규정짓기도 하였으며,⁷²⁾ 죽은 자를 위한 의례와 관련된 목간으로 보기도 했다.⁷³⁾

필자는 이 자료가 백제의 불교의례를 보여주는 자료로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중 ‘是非’는 『예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확’과 ‘착오’를 뜻하며, 의례에서 是非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⁷⁴⁾ 필자는 ‘是非’가 ‘善惡’과도 의미가 통한다고 보고자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宿世 善惡의 業을 관찰하여 懺悔한 후 三世 果報의 差別相을 점쳐보는 의식인 占察法會와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相問’은 서로 보내는 예의(互相贈送)로 봉분을 만든 다음에 물러나는 것이며, 相趨, 相揖, 相見 등과 견주어지는 의례의 방법이라는 연구가 있다.⁷⁵⁾ 필자는 이에 더하여 D의 『占察善惡業報經(점찰경)』에 나오는 ‘差別之相’과 ‘分別相’에 좀 더 착안하고자 한다. 業이란 마음에 따라 相을 나타내고 果를 일으키므로, 드러난 相을 잘 관찰하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점찰법은 바로 마음을 따라 나타난 相을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한다.⁷⁶⁾ 그렇다면 ‘相問’이라는 문구 안에는 是非(善惡)의 差別 相을 물어 관찰한다는 점찰법의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上拜’는 ‘우러러 예배한다’는 의미로, 是非(善惡)의 差別 相을 물은 뒤에 그 결과에 따라 懺悔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치

71)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 39.

72) 조해숙, 2006 「백제 목간기록 “宿世結業…”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31.

73) 김영심, 2009 「扶餘 陵山里 출토 ‘六口五方’ 목간과 백제의 數術學」 『木簡과 文字』 3.

74) 夫禮者 所以定親疏 決嫌疑 別同異 明是非也 《禮記》 曲禮上》

조해숙, 2006 「백제 목간기록 “宿世結業…”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31, p.167.

75) 相趨也 出宮而退 相揖也 哀次而退 相問也 既封而退 相見也 反哭而退 《禮記》 雜記下》

조해숙, 2006 「백제 목간기록 “宿世結業…”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31, p.168.

76) 박미선, 2013 「신라 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윤회 인식」, 혜안, p.42.

막의 ‘白來’는 ‘사뢰러 오다’로 풀 수 있지만, ‘내세를 사뢰다’라는 불교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한다.⁷⁷⁾ 이에 과거(宿世), 현재(同生), 미래(來世)로 면면히 이어지는 불교의 業도 함께 고려하면, 是非(善惡)의 差別 相을 물어 懺悔하여 來世를 기약한다는 의미까지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필자는 능산리사지 305호 “宿世結業” 목간의 내용을 C-②와 같이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 『觀世音應驗記』의 백제 發正과 武廣王 자료에도 宿世의 因(業)과 懺悔 관련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① 沙門 發正은 백제 사람이다. 梁 天監 연간(502~519)에 책 상자를 짊어지고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스승을 찾아가 불도를 배워 자못 그 義趣를 깨닫고, 精進에 힘썼다. 양나라에 30여년 있었지만, 잠시도 고향을 잊지 못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 發正은 돌아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越州의 경계가 되는 산에 觀世音의 堵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발정이 가서 보니 기둥과 서까래는 문드러져 사라졌지만, 담장만은 남아있었다. 일찍이 2명의 道人이 서로 入山을 약속하고서 한 사람은 『華嚴經』을 念誦하고자 하였고 한 사람은 『法華經』을 念誦하고자 하여, 각각 한 골짜기를 차지한 채 堵室을 만들었다. … 만일 1부를 잘 외우지 못하겠거든, 진실로 『觀世音經』을 암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는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이 도인은 宿世의 因(業)으로 자신의 根氣가 둔함을 마음속으로 비통하게 여겼다. 이에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되, 밤낮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 대략 반 정도를 외우게 되었다. … 이에 그 도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서로 시험하고자 하고는 床에 앉아 암송하는데, 40권 『화엄경』의 경문이 한

77) 金永旭, 2003 「百濟 吏讀에 對하여」 『口訣研究』 11, p.143.

자도 빠짐이 없었다. 다음에 이 도인이 상에 올라앉아 외우는데, 처음 암송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여러 가지 꽃향기가 공중에서 내려오고堵室이 꽃으로 넘쳐나며 향이 온 골짜기를 두루 덮어 기운이 하늘에 가득 차서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華嚴經』을 念誦하던 도인은 땅으로 내려와 머리를 조아렸고, 얼굴에 피를 줄줄 흘리며 懺悔하고 사과하였다.⁷⁸⁾ 《觀世音應驗記》附 百濟 沙門 發正)

E-② 百濟 武廣王은 柶慕蜜地로 遷都하고 새롭게 精舍를 경영하였다. 貞觀 13년(639) 歲次 己亥 冬11월에 하늘에서 크게 천둥과 함께 비가 들이쳐 결국 帝釋精舍는 그 재해를 입어 佛堂, 七級浮圖, 回廊, 廊房 등이 모두 불타 사라졌다. 탑 아래 礎石 안에는 여러 가지 7寶를 넣어두었고, 佛舍利를 담은 水瓶瓶도 넣어두었다. 또 구리로 종이를 만들어 『金剛波若經』을 써서 木漆函에 담아 두었다. 이제 초석을 드러내고 열어 살펴보니 모두 불타 없어지고, 오직 불사리 병과 『金剛波若經』 漆函만 그대로였다. 수정병은 안팎이 두루 보였는데, 뚜껑 역시 움직이지 않았으나 사리는 모두 없어졌고, 어디로 나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병을 가지고 대왕에게 보냈다. 대왕은 法師를 청하고, 바로 發하여 懺悔한 뒤에 병을 열어 살펴보니, 불사리 6과가 모두 병 안에 담겨 있었다. 밖에서 살펴보아도 6과가 모두 보였다. 이에 대왕과 여러 宮人들이 공경하여 믿음이 배를 더하였고, 바로 發하여 공양하고는

78) 有沙門發正者 百濟人也 梁天監中 負笈西渡 尋師學道 頗解義趣 亦明精進 在梁三十餘年 不能頓忘桑梓 還歸本土 發正自道 聞他說 越州界山 有觀世音堵室 故往觀之 榱椽爛盡 而堵牆獨存云 尚有二道人 相要入山 一人欲誦華嚴經 一人誦法華經 各據一谷 築作堵室 … 若不能念誦一部 正可誦觀世音經也 便還其室 於是此人心自悲痛 宿因鈍根 乃至心讀誦 晝夜匪懈 諳得略半 … 於是其人大喜 欲以相試 乃坐床誦之 四十卷經 一無遺落 次復此人上床誦之 始得發聲 卽於空中 雨種種花 花香溢堵室 香聞遍谷 氣氳滿天 不可勝計 於是 誦華嚴者 卽下地叩頭 頭面流血 懺悔謝過 《觀世音應驗記》附 百濟 沙門 發正)

다시 사원을 고쳐짓고 그곳에 보관하였다.⁷⁹⁾ 《觀世音應驗記》附 百濟 武廣王》

E의 『觀世音應驗記』는 중국 南齊의 陸杲(459~532)가 劉宋 傅亮(374~426)의 『光世音應驗記』와 張演(5세기 전반)의 『續光世音應驗記』에 이어 자신의 『繫觀世音應驗記』 등 三書を 合本하여 一冊으로 만들고, 『觀世音應驗記』라는 제목을 붙인 책이다. 현재 日本 京都의 靑蓮院에 소장되어 있는데, 11세기경 청련원에서 승려 良祐에 의해 서사된 뒤 鎌倉時代 중기에 다시 전사된 필사본이다. 이 靑蓮院本에는 陸杲 이후 어떤 후대인이 백제의 관세음응험에 관한 새로운 2사례를 採錄하여 책의 말미에 덧붙여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E-① 發正 기록과 E-② 武廣王 시기의 帝釋精舍 기록이다. 뒤의 IV장에서 살필 7세기 중반에 활동한 의적의 『법화경집험기』에 “관세음응험기」에 백제인이 있다”면서 발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7세기 중반에는 이러한 형태의 『관세음응험기』가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①에 의하면, 發正은 梁 武帝 天監 연간(502~519)에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갔으며, 약 30년이 지난 532~549년 사이에 백제로 돌아왔다. 발정은 귀국하던 중 『法華經』 독송과 관세음신앙이 결합된 應驗을 듣고 그 장소인 越州界山을 직접 답사하였다. 관세음보살은 『華嚴經』에도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法華經』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등장하고 있다. 越州界山은 현재 관음신앙의 성지인 주산군도의 普陀山일 가능성이 크며, 『宣和奉使高麗圖經』에

79) 百濟武廣王 遷都秣菴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 己亥冬十一月 天大雷雨 遂災 帝釋精舍 佛堂 七級浮圖 乃至廊房 一皆燒盡 塔下礎石中 有種種七寶 亦有佛舍利 罍 水精瓶 又以銅作紙 寫金剛波若經 貯以木漆函 發礎石開視 悉皆燒盡 唯佛舍利瓶 與波 若經漆函 如故 水精瓶 內外徹見 蓋亦不動 而舍利悉無 不知所出 將瓶以歸大王 大王 請法師發即讖悔 開瓶視之 佛舍利六箇 俱在處內瓶 自外視之 六箇悉見 於是 大王及諸 宮人 倍加敬信 發即供養 更造寺貯焉 《觀世音應驗記》附 百濟 武廣王》

는 발정의 활동 시기에 해당하는 梁武帝(蕭衍, 재위 502~549) 때 이곳에 처음 普陀院을 세웠다고 한다.⁸⁰⁾ E-①은 百濟沙門發正이 중국에서 귀국하던 도중에 들었던 이야기로, 宿因鈍根, 곧 宿世의 因(業)으로 자신의 根氣가 둔함을 마음속으로 비통하게 여겼던 『法華經』念誦道人이 일으킨 기적과, 이를 본 『華嚴經』念誦道人의 懺悔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자료는 관세음응험과 관련하여 『화엄경』이 아닌 『법화경』을 중시하고 있음과 함께 懺悔를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백제 자료라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특히 宿世의 因(業)으로 자신의 根氣가 둔함을 비통하게 여겼던 『法華經』念誦道人과, 그의 도반이었던 『華嚴經』念誦道人의 懺悔는 C-① 능산리사지 “宿世結業” 목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킨다. 곧, 이 목간은 『법화경』염송 도인이 도반인 승려 慧暉에게 보낸 서간으로, 과거(宿世), 현재(同生), 미래(來世)로 끈끈히 이어지는 불교의 業 속에서 함께 是非(善惡)의 差別相을 물어 관찰하여 懺悔하며 수행해 나가자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또 다른 백제 응험기인 E-②에서는 백제 武廣王이 제석사 사리와 관련하여 懺悔하는 기록과 함께 미륵신앙과의 관련도 보이고 있다. 현광의 스승인 혜사는 미륵의 용화회상에 참여한 꿈을 꾸 이후 末法시대가 지나고 미륵불이 출현할 것을 확신하는 강렬한 미륵신앙을 갖게 되었고, 여러 惡比丘, 惡論師들의 방해로 목숨을 잃을 재난을 경험한 후에는 미륵이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金字 『반야경』을 만들겠다는 서원을 발했으며, 그것이 완성된 후에는 불법 수호 의지를 담은 『立誓願文』을 찬술했다고 한다. 이러한 혜사의 미륵사상이 현광을 통해 백제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며, 『관세음응험기』에 백제 무광왕이 만든 제석정사 탑에 사리와 함께 봉안된 銅紙 『金剛波若經』과 漆函이

80) 『宣和奉使高麗圖經』卷34 海道1 梅峯條에서는 “石橋 위의 산록에는 蕭梁이 세운 普陀院이 있다”라 하여, 이곳이 양 무제가 처음으로 普陀院, 즉 觀音院을 세웠던 곳임을 알려주고 있다(조영록, 2011 『동아시아 불교교류사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p.225).

이와 관련된다는 견해가 있다.⁸¹⁾ 이 자료는 백제의 『법화경』에 근거한 관세음의 응험과 함께 미륵신앙 및 국왕이 懺悔를 행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백제 자료로 주목되며, 『관세음응험기』에 수록된 백제의 두 사례에 모두 懺悔가 공통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 역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백제 불교의례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능산리사지 305호 “宿世結業” 목간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출토된 목간들 중 불교적 성격을 지니는 것들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F-①. <1면>

| | | | |
|----------------|----------------|-----------------|----------|
| 三貴 丑牟 市丁 | 至丈 至久 大貴 | 今卍 女貴 • • | 兄久 □女 |
|----------------|----------------|-----------------|----------|

<2면> 乙乙乙乙乙乙乙乙

乙乙乙乙乙乙乙乙

乙乙乙乙乙乙乙乙 <扶餘 陵山里寺址 299호 목간>

F-②. <1면> 書亦從此法爲之凡六口五方

<2면> 又行色也凡作形〃中了其 <扶餘 陵山里寺址 301호 목간>

F-③. 竹山六

月廿六日上來辛 眼庫四 <扶餘 陵山里寺址 303호 목간>

F-④. <1면> 智寔

四月七日寶寔寺

乘

<2면> 送二石 <扶餘 陵山里寺址 304호 목간>

F-⑤. <1면> √子基寺

81) 최연식, 2011 「백제 후기 미륵사상의 전개과정과 특성」 『韓國思想史學』 37, pp.5~9, p.17.

〈2면〉 V□□□ 〈扶餘 陵山里寺址 313호 목간〉

F-① 299호 목간에 대해서는 祈福的 성격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貴’字가 ‘父’·‘母’·‘兄’·‘女’ 등 가족관계 명칭에 수반되어 반복 출현한다고 판독하여, 吉祥을 추구하기 위해 행한 讖緯나 占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⁸²⁾ 그러나 ‘父’·‘母’·‘兄’·‘女’의 판독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두 인명으로 보아야 하고, 상단이 圭頭 형태로 패선을 긋고 여러 인명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慰靈祭와 같은 제사의례에 사용된 위패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목간 좌변의 의도적 폐기 행정은 백제가 제사에서 사용한 토기를 ‘毀棄’하던 것과 같은 의례의 마지막 절차로 보기도 한다.⁸³⁾ 뒷면에 乙과 같은 형태의 반복적인 부호가 전면을 채운 점도 符籙이나 呪符 목간과 상통하고 있다.⁸⁴⁾ 얇기가 일본이나 중국의 제사에 쓰이는 인형 모양 목제품과 유사하고, 뒷면의 기호에 주술적 느낌이 있다는 점에서도 주술 목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⁸⁵⁾ 뒷면의 기호를 ‘水’자의 이체자로 보면서 물과 관련된 祓禊 행사에 罪穢消去나 除災祈福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도 있다.⁸⁶⁾ 필자는 『周書』에 백제가 卜筮와 占相의 術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된 점과, 앞서 살핀 A-①의 중국 塔讖法 및 신라의 원광 사례로 보아, 이 목간이 백제에서 쓰인 불교식 占卜 도구였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고자 한다.

F-② 301호 목간은 5부 5방의 백제 지방통치 조직을 연상시키는 “6부 5방”이라는 문구로 주목되었던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을 ‘尸具’로 판독한 뒤, 전쟁에서 전사하여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귀환한 전몰 병

82) 朴仲煥, 2002 「扶餘 陵山里發掘 木簡 豫報」 『한국고대사연구』 28, pp.222~223.

83) 尹善泰, 2004 「扶餘陵山里 出土 百濟木簡의 再檢討」 『東國史學』 40.

84)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pp.150~152.

85) 이용현, 2007 「목간」 『百濟의 文化와 生活(백제문화사대계 12)』, 충남역사문화연구원.

86) 方国花, 2010 「扶餘 陵山里 出土 299호 목간」 『木簡과 文字』 6, p.31.

사들의 장송 절차를 규정한 律令의 일부가 곧 ‘此法’이라는 견해가 있다.⁸⁷⁾ ‘從此法’이 佛法 의식을 가리킨다고 보아 이 목간의 성격을 불교와 관련된 儀式에서 사용된 呪符木簡으로 간주하면서, 백제 영역조직인 ‘6부 5방’ 영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法’을 통한 복속의례가 이 장소에서 행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⁸⁸⁾ 形과 色이 불교적 분위기의 용어이며 ‘法’이 곧 불법을 가리킨다고 보아, 佛法 시행과 관련된 문건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⁸⁹⁾ ‘作形’을 도교의 術數學과 연관지어 ‘형체의 보전’으로 해석하고, 전쟁 중 참혹한 죽음을 맞은 성왕과 전사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장송의례 또는 제사의례와 연관된 주술·의례용 목간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⁹⁰⁾ 필자도 이에 동의하면서 天과 五帝 제사의 祭場으로 둘러싸인 신성한 사비 도성을 ‘六部(天+五帝=六)’로 표현한 것으로 본 바 있다.⁹¹⁾

F-③ 303호 목간은 앞서 살핀 C.305호 “宿世結業” 목간에 보이는 ‘是非相問’의 구체적인 대상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⁹²⁾ 竹山이 약초를 재배·공급하는 존재를 보여주므로, 의약과 관련된 道教書에 대한 이해도를 알게 해 준다는 견해도 있다.⁹³⁾ 필자는 신라 원광이 가슬갑사에서 점찰법회 시행을 위한 占察寶를 만들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내세를 위해 준비한 점찰보격인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으로 보는 것은 어떤가 한다.

F-④ 304호 목간은 “四月七日 寶惠寺 智寔 乘_■/_■送塩二石”으로 보아,

87) 朴仲煥, 2007 『百濟 金石文 研究』,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6~120.

88)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 39, pp.114~125.

89)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소장품조사자료집-』, p.243.

90) 김영심, 2009 『扶餘 陵山里 출토 ‘六口五方’ 목간과 백제의 數術學』 『木簡과 文字』 3, pp.133~134.

91) 이장웅, 2010 『百濟 泗泚期 五帝 祭祀와 陵山里寺址』 『百濟文化』 42, p.55.

92) 朴仲煥, 2002 『扶餘 陵山里 發掘 木簡 豫報』 『한국고대사연구』 28, p.220.

93) 김영심, 2009 『扶餘 陵山里 출토 ‘六口五方’ 목간과 백제의 數術學』 『木簡과 文字』 3, p.133.

석가탄신일 의례에 참석하러 온 寶熹寺 승려들에게 답례로 보낸 소금 2석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곧, 석가탄신일 의례에 참석하러 온 승려들을 날짜와 사찰별로 정리한 승려의 출석 명단 중 하나였으며, 뒷면은 의례 이후 승려들에게 주어진 답례품을 출납 장부 정리를 위해 앞면과 연결시켜 추기한 메모로 추정된다.⁹⁴⁾ 소금을 보냈다는 점에서 寶熹寺는 능산리사지와 가까운 지역에 자리하였으며, 부여나 부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던 사찰로 보는 견해가 있다.⁹⁵⁾

F-⑤ 313호 목간은 이를 후대인 인물의 증명서 역할을 했다는 견해가 있으며,⁹⁶⁾ “子基寺”에서 물품에 매달아 보낸 꼬리표 목간(부찰목간)으로 보면서 목간이 출토된 능산리사지와 자기사 사이에 인적·물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살피기도 한다.⁹⁷⁾ 이는 백제 중앙에 해당하는 사비도성 바로 외곽에 위치하면서 五帝 제사가 이루어졌던 능산리사지와⁹⁸⁾ 子基寺 등 지방사원(外寺)과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목간 자료들은 백제에서도 위령제 성격을 지닌 팔관회나 점찰법회와 같은 성격의 불교의례가 중앙과 지방의 사원에서 서로 교류하며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94) 尹善泰, 2004 「扶餘陵山里 出土 百濟木簡의 再檢討」 『東國史學』 40.

95) 최연식, 2007 「백제 찬술문헌으로서의 《大乘四論玄義記》」 『韓國史研究』 136, p.17.

96)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 39.

97)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pp.145~150.

98) 능산리사지가 五帝 제사의 제장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장웅, 2010 「백제 사비기 五帝 제사와 능산리사지」 『백제문화』 42 참조.

IV. 백제 불교의례가 후대 法相宗·天台宗에 끼친 영향

백제 시기의 불교는 아직 종파 불교로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화신앙과 함께 미륵신앙이 양 축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⁹⁾ 신라 중대에도 종파의 성립은 확실하지 않지만, 교학이 크게 융성하면서 法相學(唯識學)의 학파는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를 지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법상종과 천태종으로 발전하게 된다.

백제에서 현광이 활동하던 시기인 신라 진평왕 시기(재위 579~632) 五岳 지역에 불교사원이 건립되면서 위령제 및 지장신앙과 결합된 占察法會를 행한 사실은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G. 眞平王 때 智惠라는 比丘尼가 있었는데 어진 행실이 많았다. 安興寺에 살았는데 佛殿을 수리하려고 했으나 힘이 모자랐다. 꿈에 한 女仙이 머리를 진주와 비취로 장식한 예쁜 모습으로 와서 위로하며 말하기를, “나는 仙桃山의 神母인데, 네가 불전을 수리하려는 것이 기뻐서, 金 열 근을 시주하여 돕고자 한다. 내 자리 밑에서 금을 가져다가 主尊 3像을 장식하고, 벽 위에는 53佛과 6類聖衆 및 여러 天神과 五岳 神君을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 두 계절에 10일간 善男善女들을 모아 널리 일체 중생(含靈)을 위하여 占察法會를 여는 것을 항상 법규로 삼아라”고 하였다. 지혜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 무리를 이끌고 神祠의 자리 밑에 가서 황금 160냥을 파내어 일을 성취하고 모두 神母의 가르침대로 하였다. 그 일만이 전해질 뿐 佛法行事는 폐지되었다. <『三國遺事』 卷5 感通7 仙桃聖母隨喜佛事>

99) 조경철, 2009 「백제 익산 彌勒寺 창건의 신앙적 배경-彌勒信仰과 法華信仰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32.

G자료는 신라 진평왕 시기에 五岳 중 西岳이었던 仙桃山의 安興寺에서 실시한 점찰법회에 대한 기록이다. 이 점찰법회는 원광이 신라에서 처음 행한 점찰법회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主尊 3像과 함께 벽에 53佛과 6類聖衆 및 여러 天神과 五岳 神君을 그려 예배하고 있다. 『점찰경』에서는 참회의 방법으로 낮 三時와 밤 三時의 六時禮拜를 제시하면서, 과거 7불과 53불에 대한 공경과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¹⁰⁰⁾

원래 韓에서는 매년 5월 파종 후와 가을 10월 농사가 끝난 뒤에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무리들이 모여 밤낮 쉬지 않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풍속이 있었다.¹⁰¹⁾ 그런데 신라 中古期에 西岳으로 제사된 박혁거세의 어머니 仙桃山 神母(仙桃聖母)는¹⁰²⁾ 이러한 전통적인 계절제 시기에 占察法會라는 불교 의례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五岳 지역에 세워진 불교사원인 安興寺에서 행해진 점찰법회는 일체 含靈을 위한 것이므로, 위령제의 성격도 띠고 있다.¹⁰³⁾ 한편, 신라의 國母神이자 地母神으로 여겨졌던 선도산 신모는 인도 바라문교의 地母神이었던 지장보살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비구니 지혜가 신모의 자리 밑에서 금을 캐 主尊 3像을 조성한 것도 지장보살 본래의 뜻을 설화적으로 풀이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⁰⁴⁾

백제에서 혜현이 활동하던 7세기 초·중반의 신라 법화신앙과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가 참고된다.

100) 於晝日分在此室內 三時稱名 一心敬禮過去七佛及五十三佛 … 次至夜分時 若有燈燭光明事者 亦應三時恭敬供養悔過發願 《『占察善惡業報經』 卷上》

101)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韓》

102) 신라 中古期의 西岳 仙桃山과 박혁거세의 어머니인 仙桃聖母 신화에 대해서는 이 장웅, 2016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新羅史學報』 38 참조.

103) 박광연, 2002 「圓光의 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104)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pp.226~227.

H. 敵良州 阿曲縣의 靈鷲山에 기이한 스님이 있었다. 암자에 여러 해 살았는데, 鄉邑에서는 모두 알지 못했고, 스님도 氏名을 말하지 않았다. 항상 『법화경(法華)』을 읽어, 이에 신통력이 있었다. 龍朔 初에 沙彌 智通이 있었는데, 伊亮公 집의 노비였다. 17세에 출가하였는데, 이 때에 까마귀가 와서 울며 이르길, “영축산에 가서 朗智에게 의탁하여 제자가 되어라.” 하였다. 지통이 그것을 듣고, 그 산을 찾아 골짜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문득 異人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普大士(보현보살)로, 너에게 戒品을 주고자 하여, 그 까닭에 여기에 왔다.” 하였다. 이에 계를 베풀고는 마치자 사라졌다. … 신령스런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 나에게 의탁하게 하였고, 나에게 알려 너를 맞이하게 하니, 이 어떤 상서로움인가? 마땅히 山靈이 몰래 도운 것이다. 전하여 이르길 이 산의 주인은 辨才天女라고 한다. … 원효가 礪高寺에 머무를 때 항상 朗智를 뵈러 가니, 『初章觀文』과 『安身事心論』을 저술하게 하였다.

〈『三國遺事』卷5 避隱8 朗智乘雲普賢樹〉

H자료는 영축산을 배경으로 『법화경』과 관련된 신통한 朗智 이야기인데, 보현보살의 수계를 증시하고 있다. 남지는 원효 및 지통의 스승이라는 점에서, 원효가 유학길에 오르는 650년 이전에 영축산에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 『법화경』 독송을 통한 法華三昧 수행법은 크게 普賢行(有相行)과 安樂行(無相行)으로 구분되는데, 백제 승려 현광은 혜사의 문하에서 『법화경』 安樂行品에 의거한 안락행을 익혔으며, 신라 남지의 법화수행도 안락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⁰⁵⁾

백제 현광의 스승인 중국의 법화 승려 慧思(515~577)는 꿈에 보현보살이 六牙白象을 타고 와서 정수리를 만져주고 간 이후에 『법화경』을 저절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 뒤로 10년 동안 『법화경』 독송을 멈추지 않고서 법화삼매를

105) 南東信, 1995 『元曉의 大衆敎化와 思想體系』, 서울大學校 박사학위논문, pp.79~81.

깨달았다고 한다.¹⁰⁶⁾ 한편, 혜사는 중국 제자인 智顓(538~597)에게 普賢道場을 열어 四安樂行을 설하였고, 지의의 천태교학은 혜사의 영향을 받아 항상 禪觀과 병행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남북조·수·당 시기의 보현신앙은 대부분 『법화경』과 관련된다고 한다. 『법화경』 普賢菩薩勸發品과 『觀普賢菩薩行法經(보현관경)』은 함께 보현행의 지침서로 인정되었는데, 『보현관경』에서도 반복해서 懺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깨끗이 씻고, 정갈히 입고,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대승의 의미를 생각하며 전생의 죄를 참회하는 것이 普賢行이라고 한다.¹⁰⁷⁾

백제 熊川州 출신으로 신라 중대 신문왕 시기에 國老로 존송된 憬興, 完山州 출신으로 『宋高僧傳』에 百濟國 金山寺 眞表傳이란 제목으로 입전된 眞表, 일본에서 활동한 백제계 義營¹⁰⁸⁾ 등 신라의 대표적인 법상종 승려들이 대부분 백제 출신이고, 대표적인 법상종 사원인 금산사 등도 옛 백제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신라 법상종과 백제 불교의 관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간단히 제기된 바 있다.¹⁰⁹⁾

1635년에 海眼이 기록한 『金山寺事蹟』에 의하면 금산사는 백제 法王 때 왕흥사와 함께 건립되었다고 하였지만 대개 진표 이후에 실질적 창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진표 이전에 금산사에서 활동한 승려인 義寂의 행적이 밝혀지면서 백제 창건설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된다. 곧, 의적은 고려시대 義天의 『大覺國師文集』에 수록된 寂公(義寂) 기록을 통해,¹¹⁰⁾ 眞表보다 앞서

106) 『法華傳記』 卷3 釋慧思

107) 박광연, 2013 『新羅 法華思想史 研究』, 혜안, pp.51~55.

108) 李萬, 1994, 「百濟 義營의 唯識思想—佛乘說을 中心으로—」 『韓國佛敎學』 19

109) 최연식, 2003 「義寂의 思想傾向과 海東法相宗에서의 위상」 『불교학연구』 6, p.64.

110) 維年月日 求法沙門某(=義天) 謹以茶菓之奠 跪祭于新羅大法師故金山寺寂公之靈曰 余曾讀海東僧傳 備見法師之道之德之行之願… 〈『大覺國師文集』 卷16 祭金山寺寂法師文〉

옛 백제 지역인 金山寺에 주석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義寂은 664년 玄奘이 입적하기 이전에 당 장안에 유학하고 신라로 돌아와 원효·의상과 동시기인 7세기 중반에 활동하며 金山寺에 주석했던 法相宗 승려로 밝혀졌다. 진표의 수행 이야기 중에는 법상종의 所依佛인 미륵불에 대한 懺悔行이 있고, 미륵으로부터 받은 簡子 중 제8과 제9를 新熏과 本有로 표현하는 唯識學과 관련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진표 이전에 이미 유식학자인 의적이 금산사에 주석하면서 법상종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러한 사상 경향이 太賢에게 이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의적은 三乘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窺基의 이론과 달리 三乘의 무차별성을 강조하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긍정하는 등 기존의 법상종 이론에 비하여 一乘의인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¹¹¹⁾ 이러한 점도 會三歸一이 강조되었던 백제 법화신앙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적은 『法華經集驗記』도 저술하였는데,¹¹²⁾ 여기에는 중국인이 아닌 인물로 유일하게 백제인 發正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곧, “『觀世音應驗記』에 百濟인이 있다”고 기록하면서 앞서 살핀 E-①의 발정 이야기를 수록하여 그가 백제인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¹¹³⁾ 이로 보아 의적은 백제 지방에까지 널리 퍼진 법화신앙을 이용하여 백제인과 소통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

『法華經集驗記』의 내용은 『법화경』의 讀誦, 轉讀, 書寫, 聽聞의 공덕으로

111) 최연식, 2003 「義寂의 思想傾向과 海東法相宗에서의 위상」 『불교학연구』 6, pp.36~63.

112) 李起雲, 1996 「신라 義寂의 法華思想 연구」 『大學院研究論集』 26, 東國大學校 大學院.

金相鉉, 2000 「義寂의 『法華經集驗記』에 대하여」 『동국사학』 34.

박광연, 2007 「의적의 『법화경집험기』 편찬 배경과 특징」 『역사와 현실』 66.

113) 觀世音應驗記有百濟人也 梁天監中 負笈西渡 … 至今猶存 沙門發正親所見焉 〈法華經集驗記〉 卷上 諷誦 釋發正〉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救濟 이야기(10화)와 『법화경』의 공덕으로 나타나는 感應 이야기(24화) 및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 이야기(3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감응 이야기는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 다음으로 죽은 뒤 육신은 썩어도 혀는 썩지 않고 살아있을 때처럼 붉다는 이야기가 많다. 『법화경』을 많이 외면 육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혀가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혀 감응은 鳩摩羅什(343~413)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법화경』 독송과 관련된 감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¹¹⁴⁾ 백제의 대표적인 법화승려인 慧顯도 이와 같은 혀 감응을 보이고 있다.¹¹⁵⁾

한편, 백제 멸망 후 백제 지역인 부안 不思議菴과 김제 金山寺에서 활동한 진표는 법상종의 宗祖로 여겨지는 미륵보살을 親見하고 『占察經』과 簡子를 받았으므로, 점찰법과 법상종이 모두 미륵에서 연원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¹¹⁶⁾ 진표는 미륵보살 이전에 지장보살도 친견하고 있으므로 그의 미륵신앙은 懺悔와 점찰법에 결부된 지장신앙과도 결합되었다.¹¹⁷⁾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시대에 천태교학을 기반으로 白蓮結社를 일으킨 了世의 참법, 禪觀, 『법화경』 독송 등을 통해 백제 법화신앙과 참회의 영향이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惠文과 惠思가 이를 祖述하여 이어왔고, 智者 대사는 하늘이 낳은 총명으로 다시 목탁 소리를 드날렸으며, 章安 대사가 結集하고, 二威 대사가 전하며, 尤溪 대사가 계승하고, 毗陵 대사가 기록하기에 이르러 憲章이 크게 갖추어져 가히 배우고 행할 만하였다. 本朝(고려)에서는 玄光·義

114) 박광연, 2013 『新羅 法華思想史 研究』, 혜안, p.155.

115) 백제의 法華 感應緣에 대해서는 정아영, 2016 『感應緣을 통해 본 百濟 法華信仰』, 고려대 한국사학과 석사논문 참조.

116) 金映遂, 1937 『五教兩宗에 對하여』 『震檀學報』 8, p.92.

117) 金南允, 1995 『신라 法相宗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通·諦觀·德善·智宗·義天과 같은 이들이 바다를 건너가서 교리를 묻고 天台宗 三觀의 중지를 배워서 이 땅에 전해 퍼지게 하여 우리나라를 복되게 한 것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普賢道場을 열고 널리 불경을 읽도록 권하기까지 한 일은 없었다. … 泰和 8년 무진년(1208) 봄에 月生山 藥師蘭若에 머물고 있었다. … 이후로는 『妙宗』을 설법하기 좋아하였으며 언변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다. 여러 사람에게 권하여 懺悔를 닦기를 간절하고 지극하고 용맹스럽게 하여 매일 53佛에게 열두 번씩 禮敬하고, 비록 모진 추위와 무더운 더위라고 한 번도 게을리 하지 않아 승려들이 徐懺悔라고 불렀다. 耽津縣에 信士 崔齡·崔弘·李仁闢 등이 대사를 찾아와 뵈고 말했다. “지금 승려들은 점점 많이 모여 산사가 심히 험소한데, 우리 고을 남해의 산 옆에 萬德寺 옛터가 맑고 빼어나 절을 지을 만합니다. 어찌 가서 시도하지 않으십니까.” 대사가 가서 보고 허락하여 大安 3년 신미년(1211) 봄에 공사를 시작하여, 제자 元螢·之湛·法安 등을 시켜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工匠을 모집하여 집 80여 간을 지었다. 貞祐 4년(1216) 가을에 준공이 되어 법회를 열고 낙성식을 했다. … 임진년(1232) 여름 4월 8일에 처음으로 普賢道場을 결성하고 法華三昧를 수행하여, 極樂淨土에 왕생하기를 구하되, 오로지 天台三昧儀에 따라 하였다. 오랫동안 法華懺悔를 수행하고 주변에 권하여 發心시켜 이 경을 외운 자가 천여 명이나 되었다. 〈白蓮寺 圓妙國師碑〉

I자료는 白蓮寺에 있는 고려시대의 圓妙國師 了世(1163~1245)의 비문으로, 그는 법화신앙 중심의 천태교학을 기반으로 한 신앙 결사인 白蓮結社를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 了世는 定慧 修禪結社로 유명한 普照國師 知訥과 함께 修禪의 기회를 갖기도 했으나, 1208년 영암 月生山(月出山)의 藥師蘭若에 거주한 이후 曹溪禪에서 천태교관으로 사상적 전환을 하게 된다.¹¹⁸⁾ 요세는 맹렬한 참회행을 닦아 날마다 53불을 12번이나 돌면서 극심한 寒暑에도 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耽津縣(현재의 강진) 만덕산으로 주석처를 옮겨 1216년에 백련결사를 조직하게 된다. 1232년에는 『妙法蓮華經』 28品 普賢菩薩勸發品에 입각한 보현도량을 설치하는데, 이는 法華三昧, 求生淨土, 法華懺悔를 골격으로 하였다. 그는 慧思를 계승한 智顛가 체계화시켜 찬술한 『법화삼매참의』에 의거한 참법을 바탕으로 하고, 매일 禪觀, 誦授하며 『법화경』 독송과 准提神呪 천 번 염송, 미타불 만 번 소리내어 읽기를 일과로 삼았다고 한다.¹¹⁹⁾ 이에 요세의 백련결사를 법화관에 바탕하여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실천 방향으로 강조하면서, 고려 후기 지방 세력과 민간 계층에 폭넓게 전파한 신앙운동의 결정체로 평가하고 있다.¹²⁰⁾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백제 때부터 이어온 법화신앙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요세는 月生山の 藥師蘭若에 머물면서 사상적 변화를 일으켰는데, 바로 이 月生山은 백제의 법화승려 혜현이 주석했던 達拏山寺가 자리했던 지역이라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그리고 I 비문에서 고려 천태종의 대표적인 승려들을 나열하면서 고려 초기에 활약한 義通·諦觀·德善·智宗·義天보다 앞에 가장 먼저 백제의 법화승려 玄光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는 바로 이 지역에 남아있던 백제 불교 법화신앙의 전통이 신라를 거쳐 요세를 통해 고려시대 천태종에까지 이어진 면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백제의 불교의례 연구를 위한 첫걸음으로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118) 고익진, 1978 「圓妙了世의 白蓮結社와 그 思想的 動機」 『佛教學報』 15.

119) 채상식, 2000 「고려후기 圓妙了世의 白蓮結社」 『淨土學研究』 3, p.188.

120) 문무왕, 2017 「강진 백련사의 역사와 사상 -원묘 요세의 생애와 사상 연구-」 『강좌 미술사』 48, p.106.

목간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당시 신라 불교의례와의 비교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백제 불교는 발정, 현광, 혜현으로 이어진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융화를 꾀했다. 그리고 토착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 불교적 天神인 帝釋天을 위한 불교의례인 八關會를 통해 토착신앙과 불교가 결합되었다. 특히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발굴된 “宿世結業” 목간은 宿世 善惡의業을 관찰하여 懺悔한 후 三世 果報의 差別相을 점쳐보는 의식인 占察法會를 백제에서도 행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신라 승려 원광의 점찰법회만이 아니라 백제 승려 현광을 통한 법화신앙과 점찰법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신라 법상종의 시조에 대하여 眞表說과 太賢說이 제기되었고, 그 계보를 살피면서 眞表-心地-永深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태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고려 법상종으로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부분들이 제시되었다. 고려 천태종의 계보 역시 이전의 어떤 사상을 이어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 종파의 기원 문제에서 신라 불교는 항상 고려되고 있었지만, 백제 불교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를 통해 백제에서 彌勒信仰과 法華信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占察懺悔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고 백제의 불교사상과 후대의 영향에 대하여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원묘국사 요세의 비명에서 고려 천태종의 기원격인 승려로 백제의 법화 승려 현광이 가장 먼저 거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앞으로 불교 신앙의 계승 문제에서 백제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살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투고일 : 2018, 10, 30

심사개시일 : 2018, 11, 12

심사완료일 : 2018, 12, 5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海東高僧傳』
 『法華經集驗記』 『大覺國師文集』 『崇巖山聖住寺事蹟』
 『禮記』 『三國志』 『周書』 『宋書』 『南史』 『隋書』 『觀世音應驗記』 『宋高僧傳』 『歷代三寶紀』
 『增壹阿含經』 『占察善惡業報經』 『法華傳記』
- 姜友邦, 2000 『法空과 莊嚴』, 열화당
 강호선, 2015 『고려시대 국가의례로서의 불교의례 실행과 그 정치적 의미』 『동국사학』 59
 고익진, 1978 『圓妙了世의 白蓮結社와 그 思想的 動機』 『佛敎學報』 15
 高翊晉, 1989 『韓國古代佛敎思想史』, 東國大出版部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소장품조사자료집-』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 39
 金永旭, 2003 『百濟 吏讀에 對하여』 『口訣研究』 11
 길기태, 2006 『백제 사비시대의 불교신앙 연구』, 서경문화사
 吉基泰, 2010 『백제의 법화사상과 惠現求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1
 金南允, 1995 『신라 法相宗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두진, 2006 『백제의 정신세계』, 주류성
 김두진, 2016 『삼국시대 불교신앙사 연구』, 일조각
 김리나, 1985 『삼국시대의 봉지보주형 보살입상 연구』 『美術資料』 37
 金理那, 2003 『韓國古代佛敎彫刻比較研究』, 문예출판사
 김복순,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新羅文化』 36
 김복순·김영미·조범환·이만·주경미, 2010 『고대 불교의례 연구』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金三龍, 1983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同和出版社
 金相鉉, 1991 『新羅 中古期 業說의 受容과 意義』 『韓國古代史研究』 4
 金相鉉, 2000 『義寂의 『法華經集驗記』에 대하여』 『동국사학』 34
 金映遂, 1937 『五敎兩宗에 對하여』 『震檀學報』 8
 김영심, 2009 『扶餘 陵山里 出土 ‘六口五方’ 목간과 백제의 數術學』 『木簡과 文字』 3
 金煥泰, 1985 『百濟佛敎思想研究』, 東國大學校出版部
 金周成, 2003 『죽막동유적의 쇠퇴와 태안마애삼존불』 『韓國上古史學報』 40

- 金春實, 1998 「百濟 彫刻의 對中交涉」 『百濟 美術의 對外交涉』, 藝耕
- 南東信, 1995 「元曉의 大衆敎化와 思想體系」, 서울大學校 박사학위논문
- 노중국, 2006 「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특성」 『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재조명』, 국립부여문
화재연구소
- 李 萬, 1994 「百濟 義營의 唯識思想——佛乘說을 中心으로——」 『韓國佛敎學』 19
- 문명대, 1995 「泰安 百濟磨崖三尊佛像의 新研究」 『佛敎美術研究』 2
- 文明大, 2003 「관불과 고졸미」, 예경
- 문무왕, 2017 「강진 백련사의 역사와 사상 -원묘 요세의 생애와 사상 연구-」 『강좌미술
사』 48
- 박광연, 2002 「圓光의 占察法會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 박광연, 2007 「의적의 『법화경집험기』 편찬 배경과 특징」 『역사와 현실』 66
- 박광연, 2013 「新羅 法華思想史 研究」, 혜안
- 박미선, 2005 「圓光의 점찰법회와 三階敎」 『韓國思想史學』 24
- 박미선, 2013 「신라 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윤회 인식」, 혜안
- 朴永福, 1984 「禮山 百濟四面石佛의 고찰」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 朴仲煥, 2002 「扶餘 陵山里 發掘 木簡 豫報」 『한국고대사연구』 28
- 朴仲煥, 2007 「百濟 金石文 研究」,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方国花, 2010 「扶餘 陵山里 출토 299호 목간」 『木簡과 文字』 6
- 신종원, 1991 「圓光과 眞平王代의 占察法會」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2
-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 신종원, 2016 「신라불교의 개척자들」, 글마당
- 안지원, 2005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출판부
- 尹善泰, 2004 「扶餘陵山里 出土 百濟木簡의 再檢討」 『東國史學』 40
-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 李起雲, 1996 「신라 義寂의 法華思想 연구」 『大學院研究論集』 26, 東國大學校 大學院
- 이기운, 1996 「玄光의 法華三昧 연구」 『韓國佛敎學』 21
- 李起雲, 2000 「백제 玄光의 敎化행에 대한 연구-玄光의 제자와 그들이 얻은 三昧를 중
심으로-」 『한국불교학』 27
- 이도학, 1989 「泗泚時代 百濟의 四方界山과 護國寺刹의 成立」 『百濟研究』 20
- 이 만, 2010 「新羅의 佛敎儀禮와 發達」 『佛敎學報』 55
- 이용현, 2007 「목간」 『百濟의 文化와 生活(백제문화사대계 12)」,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이장웅, 2010 「百濟 泗泚期 五帝 祭祀와 陵山里寺址」 『百濟文化』 42
- 이장웅, 2016 「百濟 東岳 鷄藍山과 玄光의 翁山 梵刹」 『韓國古代史探究』 23
- 이장웅, 2016 「百濟 西岳 旦那山과 慧顯의 修德寺·達拏山寺」 『韓國古代史研究』 84
- 이장웅, 2016 「신라 娑蘇(仙桃聖母) 神話의 변화와 國家祭祀」 『新羅史學報』 38
- 이장웅, 2017 「백제 五岳 제사와 佛敎寺院」 『百濟研究』 66
- 정병삼, 2016 「고구려·백제와의 교류」 『신라의 불교계의 새로운 동향과 선종(신라 천년 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 1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정아영, 2016 「感應緣을 통해 본 百濟 法華信仰, 고려대 한국사학과 석사논문
- 정은우, 2005 「禮山 四面石佛의 미술사적 검토」 『百濟文化』 34
- 鄭載潤, 2007 「禮山 四面石佛의 조성 시기와 배경」 『百濟研究』 45
- 趙景徹, 1999 「百濟의 支配勢力과 法華思想」 『韓國思想史學』 12
- 趙景徹, 2007 「儒·佛 統治理念의 具現」 『사비도읍기의 백제(백제문화사대계 5)』, 충청남 도역사문화연구원
- 조경철, 2009 「백제 익산 彌勒寺 창건의 신앙적 배경-彌勒信仰과 法華信仰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32
- 조경철, 2015 「백제불교사 연구」, 지식산업사
- 조영록, 2011 「동아시아 불교교류사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 조해숙, 2006 「백제 목간기록 “宿世結業…”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31
- 채상식, 2000 「고려후기 圓妙了世의 白蓮結社」 『淨土學研究』 3
- 최연식, 1995 「圓光의 생애와 사상」 『태동고전연구』 12
- 최연식, 2003 「義寂의 思想傾向과 海東法相宗에서의 위상」 『불교학연구』 6
- 최연식, 2007 「백제 찬술문헌으로서의 《大乘四論玄義記》」 『韓國史研究』 136
- 최연식, 2007 「月出山の 觀音信仰에 대한 고찰」 『천태학연구』 10
- 최연식, 2011 「백제 후기 미륵사상의 전개과정과 특성」 『韓國思想史學』 37
- 최연식, 2011 「백제 후기의 불교학의 전개과정」 『불교학연구』 28
- 홍승우, 2013 「扶餘 지역 출토 백제 목간의 연구 현황과 전망」 『목간과 문자』 10

Abstract

Baekje's Lotus-Sutra and Jeomchal Buddhist Mass researched through Buyeo Neungsan-ri temple site's "Sook-se-gyeol-up(宿世結業)" wooden tablet

Lee, Jang-Woong

Baekje's Buddhism attempted to unite central and local areas based on the Lotus-Sutra(法華信仰) which developed by Baljeong, Hyön'gwang(玄光) and Hyehyön(慧顯). In addition, the Palgwanhoe(八關會), a rite of worship for a Buddhist Heavenly God(帝釋天) connected with indigenous faith, was also conducted only in Silla and Goryeo, but it also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the practice in Baekje.

This research, particularly concentrated on "sook-se-gyeol-up(宿世結業)" wooden tablet which excavated from Buyeo Neungsan-ri temple site. It was interpreted as showing the practice of the Jeomchal Buddhist Mass(占察法會) which was the ritual of observing the virtue and vice of the past life in Baekje. Through this process, we looked at the possibility that not only the existing the Jeomchal Buddhist Mass that practiced by Buddhist priest Wön'gwang(圓光) of Silla, but also the Lotus-Sutra(法華信仰) and the Jeomchal Buddhist Mass through the Buddhist priest Hyön'gwang(玄光) of Baekje.

If it has been found likely that Baekje was built on the Jeomchal Buddhist Mass based on the Lotus-Sutra(法華信仰),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act of Buddhism and its posterity in mind.

Key words : Hyön'gwang(玄光), Wön'gwang(圓光), Lotus-Sutra(法華信仰), Jeomchal Buddhist Mass(占察法會), Neungsan-ri temple site, sook-se-gyeol-up(宿世結業) wooden tablet, Baekje